



5월 19일 제등행렬에 참여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지도자 스님들과 최광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봉축 연등을 들고 행진 중이다. 연등축제에서 10만여 불자는 저마다 든 연등에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퍼뜨려 하는 발원을 담아 밤하늘을 환히 밝혔다.

“오늘 이 등불로 세상 밝게 비추자”

전국은 봉축행사 start! 신명나게 거리 행진하며 부처님 오신날 새겨

“오늘은 좋은날! 부처님오신날!” 전국에서 불기 제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회 연등축제가 시작됐다.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서울 동국대 운동장에서 5월 19일 큰 합성과 함께 2012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연등축제 막을 열었다.

이날 어울림마당 행사에는 3만여 사부대중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올등 리허설 △등경연대회 시상식 △관불 △개회사 △삼귀의 △경전봉독 △기원문 △행진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도 부처님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 금 다집니다.”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등을 밝히는 것은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이라며 “삶에 지친 이들에 희망을 전해주고 도반이 되자”고 말했다.

이날 어울림마당 법회에 참석한 대중은

전각종 총리원장 혜정 정사의 대표낭독을 통해 △수행정진 매진 △문화자산 보존·전승 △생명공존 가치 실현 △나눔실천 △남북평화 정착을 발원했다.

이어 어울림마당은 김희옥 동국대 총장의 행진선언과 함께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 박애리, 연꽃소녀들 등 축하공연이 펼쳐지는 화향한마당으로 이어졌다.

이날 3달간 준비한 올등을 선보인 봉은사 청년회 김보경 씨(22)는 “오늘의 기쁨을 평생에도 갖고 활발한 신생활을 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어울림마당에 이어 연등회 연등축제 꽃인 연등행렬에는 10만 연등이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밝혔다. 5월 19일 오후 6시 동국대 대광장에서 축포와 함께 시작된 연등행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울 종로를 지나 조계사까지 거리를 장엄했다.

색색의 옷을 입은 불자들은 저마다 의미를 지닌 연등을 들고 신명을 다했다. 이번

연등행렬에는 ‘연등회’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122호 지정 기념해 전통장엄등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연등행렬을 모던 시민들도 행렬에 박수를 치며 함께 호흡했다. 불교계의 불미스러운 일로 상한 불자들의 자신감을 살릴 수 있는 한마당이였다.

홍은동에서 가족과 함께 온 김재철 씨(41)는 “최근 불교계 안좋은 일로 실망이었는데 다시 신심이 난다”고 말했다.

리서야에서 온 이리나 바르노바 씨(28)는 “거리를 밝히는 등불이 너무나 예쁘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란에서 남편과 함께 온 미트라 씨(35)도 연신 “판타스틱, 뷰티풀”을 외쳤다.

봉축위는 올해 참가 외국인 규모가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3시간여에 걸친 연등행렬은 조계사에서 열린 화향한마당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20일 조계사 일대에서는 전통문화마당이 열려 피리만들기, 향만들기, 연꽃조 만들기 등 각종 체험행사로 연등축제 분위기를 이어갔다.

연등축제 분위기는 지방에서도 이어졌

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환)는 5월 9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 봉축담 점등식을 열었다. 20일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근) 회원 50여 명의 3보 1배로 시작된 점등식에는 300여 대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점등식, 탑돌이가 거행됐다.

대구에서는 한국 전통등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제1회 형형색색 탑구별 관등놀이’ 축제가 17일부터 대구 두류야구장 일원에서 열려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5월 4일 점등식에 이어 12일 연등문화제를 개막한 부산에서는 20일 5천여 불자들이 모여 국제민간기원 연산대제 이후 제등행렬을 보냈다.

강원지역에서는 속초 신흥사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신흥사(주지 우승)는 5월 19일 속초 엑스포광장에서 자비나눔 연등축제를 열고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시 저소득층 가정 500세대에 자비 불공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손문철 대구지사장·이재진 부산지사장

‘대행 스님 가르침’ 실천 다짐

12일,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대법당 준공...215㎡ 규모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은 5월 12일 김해시에 중부경남지원 대법당을 준공했다.

준공법회에는 중부경남지원장 해보 스님, 해솔 스님(대구지원장) 등 지원장 스님을 비롯해 성남 스님(김해사암연합회장), 김맹곤 김해시장, 김태호 국회의원 등 1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해보 스님은 “대행 스님 가르침 속에 수행해 나가는 불자들이 모여 이곳에 지원을 개원한 지 13년”이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의 인연을 맺고 법다운 공간에서 보살행을 닦을 수 있는 정진 도량이 되기를 발원해 오던 중 대법당을 준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보 스님은 “2년 7개월 동안 대법당 불사를 하면서 어떤 제약이나 간섭도 없었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갔다. 바로 ‘내가 한 것이 없다’는 증명이다. 부처님 일이나 그렇게 돌아간 것뿐”이라며 “대법당 불사에 동참한 사부대중의 공덕을 모두 부처님에게 회향한다”고 말했다.

중부경남지원 대법당은 대웅전

215㎡(65평)에 부속동 7평으로 이루어진 전통 목조 양식의 내외 7포합각 팔작집이다.

3층 법당의 불상을 대법당으로 옮겨 봉안한 중부경남지원장은 후불탱화는 목탱화로 장엄했으며 부처님 양편으로 문수보살, 보현보살과 부처님의 10대 제자 등을 모셨다.

한편 중부경남지원장은 대법당 불사에 참여한 신승수 대목장(대웅전 건축), 정원 스님(후불 탱화), 변종복 금속공예팀장(우주탑 조성), 정수화 칠기장(우주탑 개금), 윤수열(단청), 이상찬(전기) 씨 등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중부경남지원장은 1991년 대행 스님의 경남 여성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마산대법회를 계기로 설립됐다. 1992년 경남 마산시 동성동 한마음선원 마산지원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1995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로 법당을 이운했다. 이후 1999년 2월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으로 개명된 뒤 2000년 가설, 아난존자상 및 해수관음 보살상과 영탑공원 등을 세웠다.

이너는 기자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은 215㎡(65평) 규모의 대웅전을 준공했다. 준공법회에는 중부경남지원장 해보 스님, 해솔 스님(대구지원장), 성남 스님(김해사암연합회장), 김맹곤 김해시장, 김태호 국회의원 등 1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사진제공=한마음저널 편집실)

포교원 전법중심도량 집중 육성

17일, 어린이청소년 사찰 지원

조계종 포교원은 5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어린이청소년 전법중심도량 장학사업 지원 및 지원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결연 어린이청소년 전법중심도량은 구미 원각사, 제주 봉림사, 부산 광명사, 서울 금강사, 서울 화계사, 제주 약천사, 속초 원각사, 울산 정토사, 경주 덕숭사, 대구 동화사, 남양주 봉림사, 창원 봉림사, 고양 흥국사, 강릉 백운사, 밀양 용궁사, 서울 국

제선센터 등 16개 도량이다. 포교원은 이날 이들 사찰에 안국선원과 화성 신흥사, 한마음선원이 후원기금으로 내놓은 1260만원을 전달했다. 이밖에 포교원은 2012년 우수 어린이청소년 전법중심도량으로 선정된 21곳에 표창패와 함께 빔프로젝터와 디지털 피아노 등을 지원했다.

이밖에 포교원은 5월 15일 장애인·어린이 전법중심도량에 현판을 전달했다. 장애인 전법도량은 서울 국제선센터, 서울 광림사, 서울 화계사, 의왕 정계사 4곳이다.

노덕현 기자

케이블카 설치 환경 관점 엿갈려

16일, 제 2차 공론의 장 펼쳐

조계종 사회부와 자성과쇄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스님)가 추진하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에 대한 공론의 장’ 두 번째 자리가 마련됐다. 5월 16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케이블카 운영이 지속 가능한 미래의 관점에서 과연 효용성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토론회 역시 지자체는 자연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사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도를 건설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지자체의 주장은 모순된 행위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지자체 대부분이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사도를 설치하고 탐방로와 등산로를 폐쇄하는 대신 사도를 설치하는 것은 도보등산이 대세인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혜숙 기자

‘불교포럼’ 조직 후 본격 활동 시작

16일, 엠버서더호텔서 첫 강연

2012년 1월 불교지도자 네트워크의 기치를 걸고 출범한 ‘불교포럼’이 5월 16일 조찬 강연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불교포럼(상임대표 김동건)은 5월 16일 서울 엠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표현명 KT 사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불교포럼은 제33대 조계종 집행부가 추진하는 ‘불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회원은 160여 명.

이날 표 사장은 “환경변화로 인해 정보공유가 위중한 만큼 정보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SNS로 예전 10년, 5년, 1년이 걸리던 정보공유가 불과 몇 시간, 몇 분만에 이뤄지는 세상이 됐다”며 “잘못된 정보 또한 빠르게 공유돼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초기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포럼은 7월 18일, 9월 19일, 11월 21일(홀수 달 셋째 주 수요일) 엠버서더호텔에서 차례로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

한국대승불교조계종

불국사 (경남 창녕군 부곡면 소재)	운고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불심정사 (울산광역시 남 구 소재)	천광정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지장사 (경남 밀양시 삼랑진 소재)	동방사 (부산광역시 부산진 소재)	쌍암사 (울산광역시 남 구 소재)	벽련암 (전남 함평군 월야면 소재)
금정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불현사 (부산광역시 부산진 소재)	갑룡사 (울산광역시 북 구 소재)	화성암 (전남 담양군 남 면 소재)
법성사 (대구광역시 동 구 소재)	용연사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약불암 (울산광역시 북 구 소재)	극락정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문수사 (대구광역시 동 구 소재)	자연선원 (부산광역시 해운대 소재)	현덕사 (울산광역시 남 구 소재)	대연사 (전남 영암군 삼호리 소재)
약샘사 (경남 밀양시 초동면 소재)	태극선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미륵정사 (울산광역시 남 구 소재)	금강사 (전남 장성군 동화면 소재)
도암사 (경남 밀양시 하남읍 소재)	향비암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미정사 (울산광역시 남 구 소재)	쌍봉암 (전남 보성군 미륵면 소재)
청호암 (경남 김해시 흥 동 소재)	무량선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미륵정사 (울산광역시 중 구 소재)	법광사 (광주광역시 북 구 소재)
보성암 (경남 창녕군 부곡면 소재)	범굴사 (울산광역시 남 구 소재)	칠성암 (울산광역시 남 구 소재)	내원암 (전남 함평군 월야면 소재)
당포사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소재)	무심사 (울산광역시 중 구 소재)	보우사 (경북 경주시 남산동 소재)	천운사 (대전광역시 중 구 소재)
개남사 (경남 경주시 조양동 소재)	보광정사 (울산광역시 남 구 소재)	약불암 (울산광역시 중 구 소재)	

■ 총본산 불국사 055) 521-1236 ■ 총무원 천광정사 055)275-4704
 ■ 부산총무원 운고사 051)852-3707 ■ 울산총무원 불심정사 052)275-5530